

“템플스테이, 새로운 전기 열겠다”

문화사업단, 17일 기자회견... 향후 발전 계획 밝혀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템플스테이가 새로운 10년을 위한 포문을 열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법진)은 이를 위한 기념행사들도 잇달아 개최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0월 17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10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 향후 계획들을 발표했다.

사업단은 10주년을 맞아 앞으로는 템플스테이를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기를 위한 습관으로 생활화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새로운 슬로건 '나를 위한 행복한 습관'을 제시했다. 지난 10년간 템플스테이는 '잠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주요 슬로건이었다.

단장 법진 스님은 “요즘 외유를 할 일이 많이 생겨 외국에 나가면 모두를 템플스테이를 한국 대표 브랜드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다”며 “앞으로는 내국인, 외국인, 학생, 직장인 등 수요자를 중심으로 템플스테이 브랜드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과 사회를 위한 공익적 역할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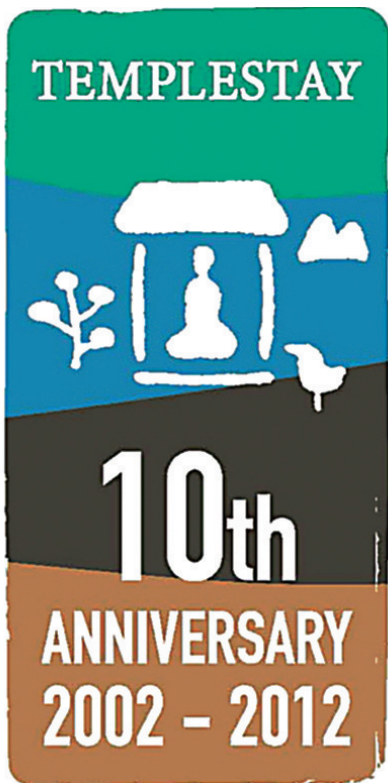
이날 사업단은 템플스테이 성과와 과제, 향후 계획들을 제시했다. 사업단은 템플스테이 10년의 주요 성과로 ▷21세기 체험관광 트렌드 창출 ▷웰빙, 심신치유, 자아성찰 등 정신문화 아이콘으로의 부상 ▷사회적 소통문화의 형성 ▷한류관광의 새로운 성장 동력 ▷국내 여가문화의 선도 등을 꼽았다.

또한 과제로는 휴식과 성장을 넘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외국인 참가자 수요에

- 수요자 맞춤형 브랜드로
- 사회통합적 가치 확대
- 외국인 전용 사찰 설치
- 해외 관광객 유치 나서

맞춤 'K-힐링'으로 상품화 할 수 있는 한류관광 콘텐츠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템플스테이 시즌2'의 목표도 이 같은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단이 수립한 '템플스테이 시즌 2' 핵심 가치는 여가문화, 전통문화, 사회공익 등이다. 또한 새로운 문화수요 창출을 위한 브랜드 개발, 개인과 사회의 갈등 해소 역할 강화



템플스테이 10주년 엠블럼

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도 수립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반영한 브랜드 확장 ▷참가자의 유형과 특성에 맞춘 세분화 된 프로그램 개발 ▷템플스테이 운영인력의 안정화 및 사찰별 프로그램

의 체계화 ▷외국인 운영 사찰을 중심으로 한 특화 프로그램 및 전문인력 관리 ▷참가자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홍보·마케팅 체계 수립 및 운영 등을 중장기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단은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채로운 사업들을 전개한다. 문화사업단은 10월 31일 오후 4시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템플스테이 10주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며 10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는 템플스테이 10년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록전시전이 열린다.

또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템플스테이 10년 역사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현대미술작가들의 초대전 '나를 위한 행복, 스마일展'을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개최한다.

10주년을 기념하는 음반도 발매된다. 음반에는 '다시 만날 때까지'라는 제목의 노래가 담기며 루이스 폴이 작사와 작곡을 노래는 인기 가수 이효리가 불렀다.

한편,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도입된 템플스테이는 매년 참가자가 30% 이상 증가하며 성장했다. 2009년 OECD는 '성공적인 5대 세계 문화 관광 상품' 중 하나로 템플스테이를 선정하기도 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사 앞 대형 호텔 건립 철회하라

법음 스님, 삼성 소유 호텔 건립 반대 성명서

서울 종로 조계사 앞에 삼성 소유 호텔이 건립되는데 대해 불교계의 첫 반대입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법음 스님은 10월 1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조계사 맞은편에 건립 중인 삼성그룹 소유 호텔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법음 스님은 성명서에서 “삼성이 조계사 코앞 1,700여 평의 대지위에 15층에서 20층 규모의 대형호텔을 신축할 것이라는 계획이 최근 사실로 확인됐다”며 “역사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상식을 갖추고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삼성이란 굴지의 대기업에서 조계사,

인사동 지역에 대형호텔을 건축해서 운영한다는 발상 따위는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조계사, 인사동 일대는 가시적인 담장이 없을 뿐이지 보호지역으로서 합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묵시적 마음의 경계가 있는 지역”이라며 “문화적 양심과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경영자라면 결코 고층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삼성이 이 지역에서의 호텔 신축을 없던 일로 하기를 바란다”고 호텔 건립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관련 칼럼 31면

“평양에 불교회관 건립하자”

민추본-조불련 교류활성화 방안 논의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스님, 이하 민추본)는 조선불교련맹 중앙위원회(위원장 심상진)와 실무회담을 갖고 남북 불교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10월 16~17일 양일간 중국 심양에서 열린 회담에서는 향후 남북 관계 개선을 전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는 민추본 본부장 지홍스님, 조계사 사회국장 묘장 스님 등이 참여했으며, 북측은 조불련 중앙위원회 리규룡 서기장, 차금철 부장 등이 참석했다. 회담에서는 ▷평양 지역 불교유적 발굴·복원 사업 추진 및 보건복지시설 포함한(가칭) 평양불교회관건립 추진 ▷내금강 불교유적 공동조사 시작으로 북한불교문화재 공동조사 추진 ▷남북불교 동질성 회복을 위한 의례통합 및 교류 추진 ▷역사적, 지리적 연관성에 기초한 남북 사찰 간



민추본과 조불련 관계자들은 10월 16~17일 중국 심양에서 교류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교류협력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민추본은 “이번 실무회담은 그간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할 사업을 남과 북이 미리 구상하고 대비하는 차원의 정책 토론회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남북 관계가 완만해졌을 때 구체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방글라데시에 종교평화를” 강력 촉구

이주민 비대위, 19일 기자회견

지난 9월 23일 방글라데시 이슬람교인들에 의해 사찰 및 불교도 주택 방화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국에서 생활하는 방글라데시 이주민 및 불교계가 ‘종교 평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방글라데시 종교평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0월 19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23일 발생한 사건으로 동자승 1명이 사망하고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소수민족·소수종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우리 자녀가 이런 상황에서 자라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국 불자 및 단

체들이 힘을 합쳐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주민들은 비대위 결성 이전인 10월 3일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진데 이어 10월 6일부터 매주 토요일 조계사 앞에서 방글라데시 종교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가져왔다.

비대위는 앞으로 ▷방글라데시 정부 및 한국 관련기관에 성명서 및 관련 자료 제출 ▷현지 피해상황 조사 ▷현지 지원 안 수립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불교를 넘어 국민적 관심과 동참 유도를 위해 28일 오후 4시 서울역 광장에서 ‘방글라데시 종교평화를 위한 평화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신종일 기자

“구미 불산 사태에 관심 가져달라”

자승 스님 구미 지역 위로 방문 환경위, 정부 비판 성명 발표

불교계가 구미 불산 사태 지원과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0월 18일 경북 구미시 선동면 환경자원화시설과 해평면 청소년수련원을 차례로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생수 ‘감로수’와 김, 국수 등 1000만원 상당의 생활 필수품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불의의 사고로 심신의 고통이 크리라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문제가 해결돼 집으로 건강히 돌아가기를 기원한다”며 피해 주민들의 손을 잡으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

피해 주민들은 “농작물 뿐만 아니라 참새들도 여기저기 죽어있다. 정부는 지금 당장 대기상태에 문제없고 건강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만 한다”며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확실한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0월 18일 구미 불산 피해자를 위로하고 1000만원 상당의 생활 필수품을 전달했다.

이날 위로방문에는 호계원장 범등 스님, 8교구 본사 직지사 주지 성용 스님이 함께 했으며, 직지사도 별도로 5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10월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구미 불산 유출 사태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불러온 대형 인재라고 비판했다. 신종일 기자

환경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노동자와 주민들이 맹목성 가스에 그대로 노출되는 등 불산가스 유출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사고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고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과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고, 피해보상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조계종 1억원 들여 석보체 개발

2013년 한글날 발표 예정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전통불교문화서체 석보체 개발을 추진한다. 석보체는 2013년 3월 사용빈도가 높은 2,350자를 완성 부처님오신날 디자인가이드에 반영한다. 이후 7월경 11,172 글자 개발이 완료되면 내부 테스트를 거친 후 2013년 10월 9일 한글날 대외적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석보체’ 개발은 전통문화서체 개발의 첫 번째 사업으로, 한글로 만든 최초 금속 활자본(석보상절)을 복원해 현대적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계종은 향후 국고 등의 예산확보를 통해 농업경, 금강경, 천수경 등 언해본을 순차적으로 사체로 개발할 계획이다.

조계종은 “전통불교문화서체 개발은 전통문화 원형을 토대로 새로운 콘텐츠를 재탄생시키고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보다 실용적인 콘텐츠 개발을 통해 문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108인 불교계 고승 및 원로 선정

WORLD BUDDHISM LEADER

나라와 종단 어느 승가가 불문하고 전 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고 모시고자 하며 불교교 승가 종정들이 역시 그 뿐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는 불교의 최고 어른을 선정하여 모시고자 준비하는

세계 법왕 및 승왕 추대 추진위원회 세계 불교 지도자 500인 선정 발기 협의회 1차 108인 불교계 고승 및 원로 선정

(중사, 대중사 급만 동참 가능)

법하께서도 추진위원회 발기인으로 활동하시겠습니까?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보내주시시오

심사후 우선 세계불교와 한국 불교 승가 정화 차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출가 의식을 초발심의 행자로 돌아가 1주일간 중단불문, 법납, 속납까지 불문하여 남방불교의 중정 및 부중정 스님들의 지도하에 중정스님의 사찰에 입소하여 단기수행을 완료한 스님 중에 우선 108명의 원로 및 중진 비구를 모시게 됩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승가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불교의대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초석이 되어 보십시오.

한평생 부처님의 은덕으로 수행해온 큰스님들께서 앞당겨 후학들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행으로 보여 주신다면 한국 불교사에 새로운 역사와 기운이 샘솟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분들만이 추대위원회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고승 및 중진 스님들께서 500인 추대위원회를 심사 위촉하게 됩니다

신청기간 : 2012년 12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서 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

출발일시 : 2013년 2월 28일(음력 정월 19일) 6박 7일간 소승불교 체험 수련 정진 법납, 속납 일체 불문하고 대우 및 예우 일체 없음

미안마 연방 승가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 木鐸 慧恩
전화 : 02-733-5665.5670 011-229-6061 팩스 733-5671



불교 승단 품수 의식 공고



귀의 삼보하옵고,

불교 정법 수호의 깊은 의지로 지탄과 격려를 받으며 희생할 각오로 소승 목탁 글월 드리리합니다. 한국 불교계에는 300여 종단이 있습니다. 중정스님 그리고 총무원장 스님 각 원장들 그분들의 명칭이 하나같이 대종사, 종사입니다. 아니 어쩌보면 모두가 대종사요, 너도나도 대종사 종사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불교계에서는 거의 대부분 별 위식과 고시가 없이 종현 종법에 의거하여 품수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정리가 되고 조금은 걸려서 그래도 부처님 전에 부끄럽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동안 종단을 불문하고 스님들께 미안마 연방 승가회 원로 및 부중정 스님들을 3중 칠사와 은 계사로 모시고 500여 스님들의 축하속에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에 따라 떳떳하고 자랑스런 구족계 의식을 봉행하여 왔습니다. 생각외로 좋은 반응을 받고 있기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미안마 연방 승가회와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에서는 2013년 2월 28일 ~ 3월 7일에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 속에 봉행되는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좋은 인연을 맺어 부처님의 가르 속에 정진하는 출가승으로 다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大僧正 목탁 혜은 합장

국제 포교사 자격 고시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세

구족계 자격자

1. 구족계 자격 : 한국의 모든 종단 소속 비구 스님
2. 법납이 많고 직고를 불문하고 출가승에 한함
3. 30명 한정 선착순 접수

중사 대중사 품수식

1. 법납 25년 이상 : 중사 2. 법납 30년 이상 : 대중사
- ※ 1차 서류 심사 후 면접 2차 : 심의위원회
- 최종심사스님들께 품수 인증서 및 새 세계 불교 지도자들이 수여하는 국제 불교 지도자 포교 공로 훈장 수여

구족계 수계자 전원 부중정 스님 사찰에 입소 수행 결사(위빠사나, 발우공양 예불의식) 체험 후 구족계 봉행 남방불교 전통의 불명 수여

일시 : 2013년 2월 28일~3월 7일까지 (1주일간) 봉행 행사 이후 한국에서 재 추대행사 계획

2013년 4월 16일 롯데호텔 사파이어룸 의식 봉행 및 연예인 축하 공연

전화 : 02-733-5665.5670 011-229-6061 팩스 733-5671